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20. 01. 27. ~ 2020. 04. 26.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는 -18.33%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동 기간 -14.20%를 기록한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4.13%p 낮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로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는 것이예요. 또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고 공장들도 생산을 멈추자 수많은 제품의 원료로서 쓰이는 오일의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쉽게 풀지면, 이는 돈을 받고 팔아야 할 기름을 오히려 돈을 주면서 가져가달라는 일이 벌어졌음을 뜻해요. 기름의 보관 장소가 한정적이고 또 보관에 따른 비용도 무시 못할 정도이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름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에 안좋은 소식들이 가득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다수 기업들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 자명했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심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이윤 창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지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주식 시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펀드는 가치투자 철학을 유지하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뀌 놓을 사회구조적 변화 흐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야했던 일들이 모바일/온라인 중심으로도 가능해진 것들이 많기에 이와 연관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을 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이익 또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20.04.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18.33%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20. 01. 27. ~ 2020. 04. 26.) -18.33%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14.20%인 것에 비하면 4.13%p만큼 낮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

-18.22%

비교지수 : -11.68%

비교지수대비 : -6.54%p

최근 3년 수익률

-13.98%

비교지수 : -12.31%

비교지수대비 : -1.67%p

최근 5년 수익률

-5.65%

비교지수 : -10.16%

비교지수대비 : +4.51%p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21,067 백만원

순자산 총액

-18.89%p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18.89%p 줄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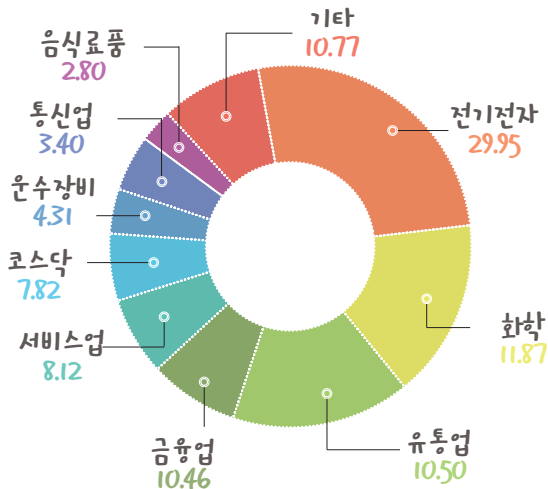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20. 04. 26. 단위: %)

| | | | | | |
|----|--------|-------|-----|-------|------|
| 1위 | 삼성전자 | 21.41 | 6위 | MH | 1.89 |
| 2위 | LG생활건강 | 2.87 | 7위 | 삼성SDI | 1.85 |
| 3위 | SK케미칼 | 2.37 | 8위 | 농심 | 1.84 |
| 4위 | LG화학 | 2.37 | 9위 | LS | 1.79 |
| 5위 | 삼성물산 | 1.93 | 10위 | SK텔레콤 | 1.71 |

2020년 4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삼성전자, LG생활건강, SK케미칼 등의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SK chemicals

SK케미칼

친환경 화학 소재, 제약, 백신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소재 공급 및 백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LG생활건강

생활용품(샴푸, 린스, 치약 등), 화장품,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NHN

네이버에서 '13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사업과 간편결제(PAYCO), 웹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20. 04. 26.

(단위 : 백만원, %)

| 매수 | |
|---------|-------|
| 수량 | 금액 |
| 106,220 | 5,281 |

| 매도 | |
|---------|-------|
| 수량 | 금액 |
| 309,393 | 5,642 |

| 매매회전율 | |
|-------|--------|
| 헤당기간 | 연환산 |
| 27.73 | 111.24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 2019.07.27 ~ 2019.10.26 |
|-------------------------|
| 11.74 |

| 2019.10.27 ~ 2020.01.26 |
|-------------------------|
| 7.24 |

| 2020.01.27 ~ 2020.04.26 |
|-------------------------|
| 27.73 |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인플레이션 이야기

“코로나19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른다”

[코로나19] 대규모 재정적자 '논란'... "걱정 없다 vs 인플레 피해“

주니어 경제박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가 싶더니만 다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이기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비교적 오랜 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나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시키는 돈의 양을 크게 늘리고 있어서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 갖는 구매력이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전 경제열전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 드렸을거예요. 이처럼 물가가 오르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먼저, 수요로부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어 필수재인 쌀이나 각종 생활용품(삼푸, 치약 등)의 소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는데 이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단기간에 그것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그 제품의 가치가 귀해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반면,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데 있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건비가 비싸지는 등의 이유로 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갑작스럽게 축소되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뜻해요.



출처 : pixab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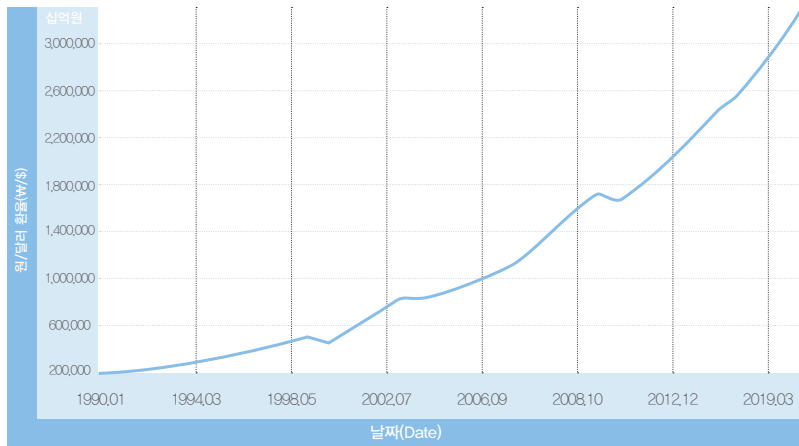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물가와 같이 화폐의 가치 또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화폐 가치와 물가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론상으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화폐의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시중에 돈은 많아지고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물가는 오를 거예요. 그만큼 화폐 1단위가 갖는 구매력이 떨어질 테니까요. 반대로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다면 화폐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쓰겠죠. 그렇다면 시중에 돈은 줄어들고 이는 곧 화폐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는 그만큼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와 같이 움직인답니다.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인플레이션 이야기

“코로나19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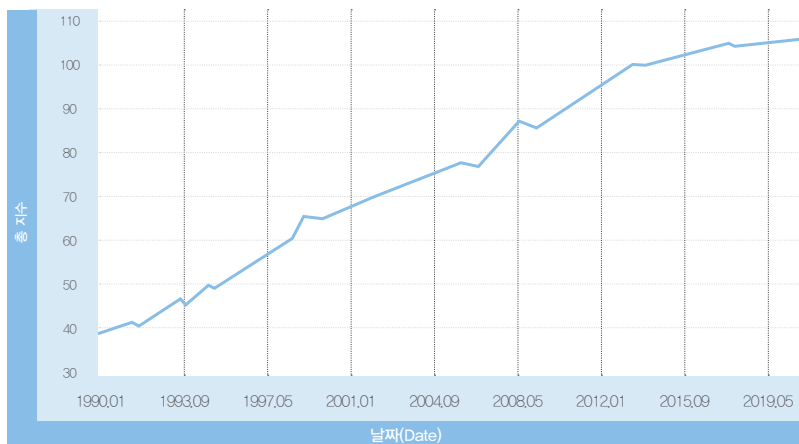
[코로나19] 대규모 재정적자 '논란'... "걱정 없다 vs 인플레 피해“

그렇다면 통계 자료를 통해 통화량과 물가 사이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 그림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시중에 유통되는 ‘광의통화(M2)’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광의통화란 쉽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은행과 같은 기관에 맡겨놓고 당장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및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이지만 역시 당장 필요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 등을 모두 통틀어서 나타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M2(광의통화) 출처 : 통계청

위 그림의 광의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아래 오른쪽 그림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어느정도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1,000원이 채 안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그릇에 5,000원에서 고급 중식당에서는 8,000원 까지 하는 것을 들 수 있죠.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2015=100)(전국) 출처 : 통계청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인플레이션 이야기

“코로나19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른다”

[코로나19] 대규모 재정적자 '논란'... "걱정 없다 vs 인플레 피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친구들도 이미 알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지장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에 소비 심리 또한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또한 영업 활동에 크게 타격을 입게 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이 하나 둘씩 망하게 되겠죠. 이는 일자리의 문제, 정부가 걷는 세수의 감소 문제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중에 역사상 이렇던 적이 없을 정도의 규모로 돈을 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이자율인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주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업 수당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망할 것이 우려되지만 해당 기업이 망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구제금융) 정책 등을 피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어요. 이에 더해 국민들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고자 최근 긴급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 (4인 가구 기준 100만원)하기도 했죠. 미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최근 1인당 1,200달러 (약 140만원)를 지급한 이슈가 있었답니다.



출처 : pixabay

이와 같이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풀린 돈이 위기 상황 극복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예요. 하지만 갈수록 화폐가 가진 구매력은 크게 떨어져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에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큰 위기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소비를 많이 줄인 상태(수요 감소)이기 때문에 이는 당장에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소비가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때, 시중에 풀린 돈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비롯된 경제에 오는 충격이 인플레이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니어경제박사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손을 잘 씻어 바이러스를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해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8.33%로 비교지수 수익률 -14.20% 대비 4.13%p 하회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X 90% + CD91 X 10%) 비교지수 대비 부진했던 펀드 성과는 동 기간 지수 대비 초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업종의 보유 비중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간, 전 섹터의 수익률이 (-)를 기록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만이 유일한 (+)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운용경과>

연초 KOSPI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OECD 경기선행지수 반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기침체 우려가 급격히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3월 중에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실패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이슈까지 겹치며,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300원까지 급등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들어서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정점 통과,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V자 지수 반등을 보였습니다. 요컨대, 유례없는 수준의 변동성 국면이 연출되었던 지난 3개월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초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음식료, 소프트웨어 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며, 금융업, 소재/산업재, 전기가스 업종은 매우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동 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활용,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향후 시장이 정상화됐을 경우 기업 가치의 빠른 정상화 및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높게 확대/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관점에서 1) 중국 소비 시장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럭셔리 화장품 업체, 2) 2차 전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모바일/온라인 중심의 구조적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핀테크/결제 업체, 4) 인구 구조 변화 및 연구개발력 향상에 따른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백신 업체, 5) 해외 신시장 개척에 따른 실적 개선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음식료 업체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월부터는 6)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및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 장비 업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 국제유가 폭락이라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원가 수혜가 기대되는 화학 업체들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연초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KOSPI는 코로나19의 발생 및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전방위적 경제 활동 제약과 더불어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악재까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3월까지 사상 초유의 급락세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들어서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정점 통과,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V자 지수 반등을 보였습니다. 요컨대, 유례없는 수준의 변동성 국면이 연출되었던 지난 3개월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 유럽 등 각국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임은 자명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 활동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 반등은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부정적인 대외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를 낮추는 요인이며, 따라서 지난 1개월 간의 KOSPI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최근 포착되는 마-중 무역분쟁의 재개 조짐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1분기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와 2) 하반기 실물경제지표들이 '2분기보다도 더' 나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과도한 비관론 또한 실익이 적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2020년 상반기보다 더 최악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증시 흐름은 이러한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진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2분기 경제 지표를 넘어, 2020년 하반기 이후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물경제지표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은 우량 가치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올해의 투자 성과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정비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동 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활용,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향후 시장이 정상화됐을 경우 기업 가치의 빠른 정상화 및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높게 확대/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관점에서 1) 중국 소비 시장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럭셔리 화장품 업체, 2) 2차 전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모바일/온라인 중심의 구조적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핀테크/결제 업체, 4) 인구 구조 변화 및 연구 개발력 향상에 따른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백신 업체, 5) 해외 신시장 개척에 따른 실적 개선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음식료 업체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월부터는 6)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및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 장비 업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 국제유가 폭락이라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원가 수혜가 기대되는 화학 업체들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변화 흐름, 그리고 기업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리서치와 펀드 운용을 통하여 중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